

# 안전하고 깨끗하게 확~바뀐 우리마을

### 광주시 북구 '동네 한바퀴 주부 순찰단' 출범 1년

#### 26개동 787명 하루 2시간씩 조별 순찰 환경 감시·범죄 예방... 3만 750건 적발

광주시 북구에는 동네 구석구석을 돌며 쓰레기 무단 투기와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파손 등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청소년들의 일탈을 예방하는 주부순찰단이 있다. 최근 출범 1년을 맞은 '동네 한 바퀴 주부 순찰단'이 그들이다. 이들은 아동 상대 범죄를 막고 주민 안전을 지키는 지역 파수꾼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북구지역 주부 순찰단은 전체 26개 동(洞) 787명. 이들은 통장·주부·자영업자·전직 교사·공무원 등 출신. 연령대는 30~60대까지 다양하다. 각 동(洞) 주부들로 구성된 옹봉동 파수꾼들은 밤 늦을 가리지 않고 오전 7시4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동네의 골목과 거리를 누비고 있다.

이들은 1인당 하루 평균 2시간씩 조별 순찰하며 깨끗한 동네, 범죄발생 제로인 동네, 살기좋은 동

네 만들기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특히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며 독거노인들을 보살피는 등 주민들간 유대관계 형성에도 애를 쓰고 있다.

이들의 역할은 주민 안전(도로 및 하수도 고장 신고 및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 등)과 환경오염 유발(불법쓰레기 투기·수질오염 등), 주민생활 불편(도로 적치물 및 공중화장실 시설물 파손 등), 아동지킴이(아동범죄·무단횡단 교통사고 예방) 분야 등이다.

그동안 이들의 감시망에 적발된 사례는 모두 3만750건. 이 중 2만4천219건은 현장 해결, 나머지 6천531건은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처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 위해 2천250건 ▲환경 오염 1만2천542건 ▲주민생활불편 1천969건 ▲도시미관 1만3천889건 등이다.

이들이 동네 파수꾼으로 나서면서 동네 거리는 물론 분위기도 차츰 변해갔다. 공원과 주요 골목길이 밝아지고 주택가 쓰레기가 사라지는 한편, 주민들간 유대관계도 좋아졌다. 특히 주민 모두가 내일처럼 적극 나서고 있는 점은 괄목할만한 점이다.

옹봉동 주민센터 주부 순찰단 김정숙(여·49)씨는 "과거엔 '누군가 쓰레기를 치우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주민 모두가 직접 나서고 있는 만큼 그 효과가 배로 나타나는 것 같다.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서도 민원을 제기하면 곧바로 민원 처리를 해준다"며 "동네가 달라보게 달라졌다"고 흐뭇해 했다.

북구 총무과 류중현 계장은 "동네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취약지역을 돌며 각종 민원을 제기, 처리하면서 동네 분위기를 많이 좋아졌다"며 "앞으로도 이들이 자율적으로 동네나리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교통사고 줄입니다”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는 1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 모범운전자회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 교통사고 줄이기' 동 범국민대회를 열고 선진 교통문화 조기 정착을 다짐했다. /위작량기자 jrwi@kwangju.co.kr

## 前구의원 부인 집안서 목졸려 숨져

### 광주 금호동 40대女 부검...가족 등 대상 조사

지난 18일 변사체로 발견된 주부 이모(여·45)씨는 누군가에 의해 목 졸려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본보 19일자 6면)

19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에 1차 부검을 의뢰한 결과, 이씨가 외부 안력에 의한 목 졸림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목 부위에 있는 연골이 부러질 정도로 누군가로부터 짓눌림을 당했다는 것이다.

발견 당시 이씨는 침대가 아닌 방

바닥에 엎드린 채 코피를 쏟고 있었다. 즉각도 발견됐다. 하지만 변사체에서 외상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를 볼 때 이씨는 누군가에 의해 목 졸려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하지만 외상이 없는 점으로 볼 때 돌연사로 숨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숨진 이씨가 평소 “건강이 좋았다”는 유족들의 진술과 최초 신고자인 남편 A씨가 현관 출입문 잠금

장치를 풀지 못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문을 연 뒤 집에 들어간 점 등에 주목, 가족 등을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다. A씨는 광주지역 모 차치구에서 의원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히 강·절도범에 의한 살인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동종전과자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도 벌이고 있다. 이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45분께 광주시 서구 금호동 5아파트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정광학원 교장 사퇴해야 제재 완화

### 광주시교육청 조건부 수용...학교측 행보 주목

광주시교육청이 교사채용비리로 강력한 제재를 받은 학교법인 정광학원에 대해 광주시교육위원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조건부 제재 완화'를 수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학교법인 측은 시교육청이 조건부로 내건 '교장 사퇴'를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미지수여서 향후 학교측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시교육청은 19일 시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시교육위원들이 긴급 제안한 '정광학원 교장 사퇴를 조건으로 한 방·난방 시설비 조건부 증액 동의'안을 받아들여기로 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정광학원에 대한 시설 지원비 8억6천여만원 가운데 난방 시설비 등 7억여원을 삭감하는

추경안 승인을 시교육위에 요청했으나 일부 교육위원들이 제정적 제재 조치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 논란을 빚었다.

시교육위는 이날 임시회를 갖고 “이미 성립된 방·난방시설 예산은 삭감하지 않고 살려서 물의를 일으킨 학교장이 스스로 자진 사퇴하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유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정광학원측이 '교장 사퇴'란 전제조건을 수용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광학원은 지난 4월 교사채용 비리와 관련해 시교육청이 요구한 중·고교 교장 해임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교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박진표기자 lucky@

## 10여차례 빈차털이 10대 소녀 영장

광주동부경찰은 19일 주택가 골목길 등에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한 김모(17)양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양은 지난 4월 13일 새벽 1시께 광주시 서구 삼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김모(43)씨의 승용차를 도구를 이용해 문을 연 뒤 차량 안에 있던 시가 29만원 상당의

내비게이션을 몰래 가져가는 등 최근까지 10회에 걸쳐 300만 원 상당의 차량털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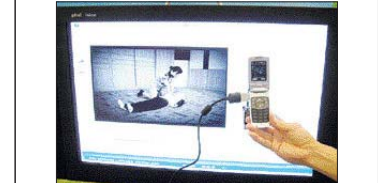
경찰조사 결과 지난 14일 보호관찰법 위반혐의로 지방수배된 김양은 함께 어울려 다니며 놀던 친구들에게 범행 수법을 배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심폐소생술 동영상 휴대전화 다운로드 시 소방본부 서비스

“심폐소생술 동영상 휴대전화로 내려받아 소중한 생명을 구하세요.”

광주시소방안전본부는 22일부터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모바일 심폐소생술 동



영상 다운로드 서비스' (사진)를 제공한다. 이 행사는 최근 광주지역 초등학생이 인터넷에서 배운 심폐소생술로 심장마비 아버지의 생명을 구하는 등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따른 것이다.

행사 참가자들은 휴대전화에 따라 행사장에서 설치된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직접 전문가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배울 수 있다. 문의 062-613-8131.

/윤영기기자 penfoot@

## 나원침 (7834)



## “부엉이 바위에 서게 하지 말라”

파면·피소 세무서 직원

한상를 전 국제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국제청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가 파면에 이어 검찰 고소까지 당한 나주세무서 직원 김동욱(47·6급)씨는 19일 “제발 부엉이 바위에 서게 하지 말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씨는 이날 이메일을 통해 발표한 ‘검찰 고소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해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아 전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를 전 국제청장을 고소해서 조사받게 해야지, 그의 잘못을 비판한 저를 왜 검찰에 고소하느냐”고 하소연했다.

김씨는 “아내는 가슴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3 딸과 고1 아들은 ‘왜 나섰느냐’고 원망 섞인 하소연을 한다”며 “제발 부엉이 바위에 서게 하지 마라”고 현재의 심정을 토로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조합원들에 금품 제공 영광수협조합장 구속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19일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영광수협조합장 김모(47)씨를 수협조합장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김씨를 당선시키고자 조합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신모(53)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9일 치러진 영광군 수협장 선거와 관련, 지난 1월 14일 선거인 장모(50)씨 등 2명에게 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이승휴기자 lsh@

## 복권 2등 당첨자 복권 출처 다듬기

○복권 당첨금 5천만원을 생활비로 탕진한 뒤 다시 '일확천금'을 꿈꾸며 복권판매소에서 복권을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서행.

○광주서부경찰은 19일 복권판매소에서 수차례 복권을 훔친 최모(28)씨를 절도 혐의로 불장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6시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22일 복권판매소에서 시가 77만원 상당의 로또복권을 주문해 행진 후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세 차례에 걸쳐 187만원 상당의 로또복권을 훔친 혐의.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3년 전 로또복권 2등 당첨금 5천만원을 쟁취한 뒤, 경찰에서 “우연히 복권에 당첨돼 당첨금만으로 살아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훔친 복권으로 180만원의 당첨금을 받았다”고 진술. /이종행 기자 golee@



광주시 북구 주부들로 구성된 '동네 한 바퀴 순찰단'이 19일 북구 옹봉동 주민센터 앞에서 깨끗한 마을을 만들자는 각오를 다지는 결의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 경관 조명사업 비리의혹 구레군청 압수수색

구레군의 경관 조명사업 관련 비리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 구레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9일 오전 구레군청 3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무실들은 지난해 말 3억2천만원 규모의 경관 조명사업을 담당했던 직원들이 부서를 옮겨 근무

하는 곳이다. 경찰은 군청 직원 3~4명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비리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0일 경관 조명사업과 관련, 구레문화원과 문화원장의 집, 공사업체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최경호기자 choice@

## 보이스피싱 1억여원 행진 중국인 등 일당 12명 검거

목포경찰은 19일 우체국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전화 금융사기)' 수법으로 국내에서 거액을 가로챈 중국인 고모(34)씨 등 5명을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에게 대포 통장을 만들어 준 김모(34)씨 등 7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고씨 등은 지난 18일 경북 영주시 모 은행에서 박모(53·신안군 지도읍)씨에게 우체국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건 뒤 은행 현금지급기로 유인, 500만 원을 송금받아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1억3천700만원을 행진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이승휴기자 lsh@

##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18분	해질녘 19시 50분	달돋이 02시 24분	달지기 17시 12분
<b>무더위 '주춤'</b>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국지적으로 천둥·번개·돌풍을 동반하는 곳도 있겠다.			
광주	흐리고 비	24/27℃	
목포	흐리고 비	22/25℃	
여수	흐리고 비	22/24℃	
완도	흐리고 비	20/24℃	
구례	흐리고 비	20/28℃	
해남	흐리고 비	21/24℃	
장흥	흐리고 비	20/24℃	
고흥	흐리고 비	22/25℃	
순천	흐리고 비	21/27℃	
영광	흐리고 비	22/26℃	
진도	흐리고 비	21/24℃	
전주	흐리고 비	22/26℃	
남원	흐리고 비	21/27℃	
속산도	흐리고 비	20/23℃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1.5~2.5m	목포 11:30	05:10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1.5~2.5m	목포 17:07	17:07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1.5~2.5m	여수 06:35	00:40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1.5~2.5m	여수 19:26	12:40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씨	21(일) 22(월) 23(화) 24(수) 25(목) 26(금)
날씨	☁ ☁ ☁ ☁ ☁ ☁
최저/최고	22/27 21/28 20/30 20/30 20/30 20/31

## 생활 게시판

### 화측

▲오인택씨 차남 광복(광주일보 문화부 기자) 군 이영자·박영란씨 차녀 은미(광주일보 경제부 기자)양 = 20일(토) 낮 12시10분 에버루션웨딩컨벤션 2층(라벤더홀)

▲지형원(인터넷신문 문화통 대표·전 광주일보 편집국장)·박윤순씨 장남 용화(고려대병원 제2리더)군 김성수(구일산업 회장)·강선영씨 차녀 도희양 = 20일(토) 오후 5시30분 무등파크호텔 4층(컨벤션 홀)

▲박윤석·오형숙씨 장남 선욱군 노광운·김신자씨 장녀 연향양 = 20일(토) 낮 12시10분 상무지구 예술의전당 3층(아이리시홀)

### 무음

▲송일순씨 막내 나석주군 최병선·범만순씨 장녀 운영양 = 20일(토) 오후 1시30분 조선컨벤션 1층(춘추홀)

▲노동래씨 삼남 이종길(OB맥주 업무차장)군 김성환(동철)·김영숙씨 장녀 현정양 = 20일(토) 낮 12시 부산 호텔르스호텔 20층(호텔르스홀)

▲서일용·김춘님씨 차남 동중군 양대식(전 광주일보 출판부)씨 차녀 세화양 = 21일(일) 낮 12시20분 메리어트웨딩홀 1층(에메랄드홀)

### 복권

▲박남구씨 별세 래홍·래경·애선·은정씨 부친상 = 발인 21일(일) 학동 금호장례식장 301호. 062-227-4000.

▲기세중씨 별세 병범·대중·건일·건순씨 부친상 = 발인 21일(일) 학동 금호장례식장 201호. 062-227-4000.

▲박남철씨 별세 승호·관호·장호·민호·정호·옥희씨 부친상 = 발인 20일(토) 그리장례식장 5분향소. 062-250-4405.

▲김동(전 왕곡초교 교사)씨 별세 용병(주)한국기업진흥원 대표)·지현(코리아교육개발원 원장)·수현(코리아노무법인 대표)·보현(한국경영원대표)·이숙씨 부친상 김성중(포스코건설 부장)씨 빙부상 = 20일(토)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오경일씨 별세 고재일·내용·현정(하남농협)·정현(인곡농협)·영씨 모친상 = 발인 20일(토) 송정효사랑병원. 062-941-4444.